

자원순환 에너지 도시 만든다더니 수천억 짜리 애물단지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 어디까지 왔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 반대로 1년 째 가동 멈춰

민관협력 거버넌스 시험가동 합의 했지만 여전히 미지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가동을 멈춘 상태다. 최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합의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 지는 미지수다.

◇‘수천억짜리 애물단지’-나주빛가람 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로 꼽히는 열병합발전소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현재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열병합발전소는 30만㎡ 이상 택지가 조성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의무설치대상인 점을 감안, 소각장 등을 대신해 2700억원이 투입돼 지어졌다. 혁신도시 인근 사군인 나주·화순, 순천·구례, 목포·신안 등 3개 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를 구축하자는 취지였다.

‘자원순환형에너지도시 조성 및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결정이지만 여태껏 정상 가동을 못한 상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기 했지만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반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멈춰섰다.

이 발전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195억원

짜리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생활쓰레기 선별과 파쇄, 건조, 압축 과정을 거쳐 팔레트 형태의 고품질 물질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지어놓고 도 성능 미달, 관리 능력 부재, 열병합발전소 운영 차질 등이 맞물리면서 가동을 멈췄다.

◇가동은 언제쯤-점예한 입장 차이로 가동이 멈췄지만 최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회의의 통해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합의, 조만간 가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협력 거버넌스는 당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 가동을 2개월간 진행한 뒤 60일간 본가동을 실시키로 했고 세부 가동 일정은 오는 11일 열리는 7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광주권 고형연료 반입 여부도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광전노협)가 열병합 발전소 시험 가동 저지 투쟁을 예고하면서 가동 여부는 불확실하다.

광전노협은 최근 “이전 기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불모로 SRF 연료 사용을 전제로 하는 환경 유해성 조사를 막아내겠다”는 성명을 냈다. 또 환경 유해성 조사를 시행할 경우 혁신도시 내 사택 타 지역 이전, SRF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연차 투쟁,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반대 투쟁 등을 예고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에서 생산한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으로 광주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이 30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광주 가연성고형 폐기물 연료 시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국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픔 달래줘야”

호남을 사랑한 퇴임장관 김부겸

‘시대의 의인’ 故 홍남순 변호사 기념 사업 예산 지원 등 큰 역할



1년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간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5일 퇴임했다. 이임식도 없이,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강원도 산불 현장에 서 약 1년 10개월 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 김부겸으로 되돌아갔다.

김 전 장관이 퇴임한 뒤 그의 ‘민주화운동 선배들에 대한 애정’과 ‘호남 사랑’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그는 최근 광주시와 화순군이 ‘인권운동의 대부’, ‘시대의 의인’으로 불리는 고 홍남순 변호사를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은 관련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확보해 생가 복원사업을, 광주시는 홍 변호사의 동구 공동 주택 매입·복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홍 변호사의 광주 동구 공동 주택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민주주의 사랑방’으로 불렸던 곳으로, 2017년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방치되어 왔다. 시는 이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5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 본 예산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홍 변호사 기념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광주시에 특별교부금 지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홍 변호사 기념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은 자신도 민주화운동으로 숭한 역경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977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중 ‘유신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제적됐고, 이듬해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또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학생운동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5·17 계엄확대와 함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됐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9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역사라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상

처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더라도 국가는 그 아픔을 달래주고 한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분들에게는 더욱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법원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당시 기자들에게 “많은 희생자와 유족이 남아 있어 저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시절 광주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청년창업지원센터 방문 등 광주·전남 현안사업에도 관심을 가졌고, 장관 취임 이전에도 그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이어왔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호남 사랑’ 배경에는 무엇보다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강한 열정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45년만에 처음으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역주의를 해소할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프레임 을 만들어 놓은 ‘영호남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도 그가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김 전 대통령이 사실상 영호남 지역갈등,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는 ‘지역주의 해소’가 한 때는 자신의 최대 소명이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장관 재임시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 김 전 장관은 “영호남 갈등 등 지역주의는 표면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임정 수립 100년 ... 특권층 반칙의 시대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법정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주와 평화를 향한 선대들의 염원을 계승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의 이상·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정부”라며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여행 깊이 즐기는 동반자!!!

대표전화: 1522-1901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7)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기타큐슈 살랑~살랑 봄꽃 가득한 4,5월에 떠나요♡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항공 매주 화/금/일 출발

오후출발(화,금,일)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2:30) → 무안(23:45)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2박3일 [정통] 499,000원~ / [플렉] 629,000원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박4일 [정통] 699,000원~ / [플렉] 75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정통] 집중모객 4/11, 21, 5/12, 19 출발 동경&하코네 3일 취항특가!! 6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889,000원~

부산출항 ↔ 대마도 매일출발

[4월 ~ 5월 대마도 매일 출발]

- ◆ 오션플라워호 부산출항 1박 2일 139,000원~

특가 & 집중모객

- ◆ 기타큐슈 황금연휴 5월3일(금) 2박3일 집중모객 789,000원
- ◆ 기타큐슈 4월특가 4/16,23일(화) 3박4일 699,000원
- ◆ 다낭(베트남항공) 5월 가정의달 특가 화/금요일 출발 49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월/수 출발] 오이타 벳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벳부&유후인&야나가와 벳놀이 4일 689,000원~

*예약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699,000원~
- ◆ [고품격] 화련,태로각,지우펀,야류 699,000원~

무안 ↔ 몽골 드넓은 대초원, 그리고 밤하늘 별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실속] 599,000원~ ◆ [품격] 84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3박4일

[바나팩] 599,000원~ / [후에품격팩] 699,000원~

[노팁&노음선] 84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수,금요일 출발] 3박5일 879,000원~

[월,수,토요일 출발] 2박4일 5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광동조전 : 여행객이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보증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관광 및 무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항수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단, 기사/가이드 봉사,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